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하고 판단하려면 최소한 두 개의 세계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는 글에 담긴 상황(가상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글을 읽는 나의 상황(현실 세계)이다. 글의 배경을 모르면, 우리는 쓰여진 글에 모든 권위를 부여하게 되고 저자의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하게 된다. 또 나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주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남의 글을 판단할 근거를 갖지 못한다.

신문을 읽을 때 우리는 글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한다. 만일 독자가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다면 그 글에 대한 독자의 이해는 그만큼 높아진다. 그리고 독자가 어떤 역사관과 가치관을 갖는가에 따라, 글에 대한 이해와 판단은 다르게 나타난다. 성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성서의 역사적 배경, 저자의 시대적 상황을 알면 알수록, 그 메시지(의도) 파악이 용이하다. 아울러 독자 나름대로 신학과 가치관을 지닐 때, 우리는 성서와 의미 있는 만남을 갖게 된다. 동시대 사건과 이야기를 다루는 신문과 독자의 경우에도 역사관이 다르면 소통과 이해가 어렵듯이,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를 넘나드는 성서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모두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성서를 다시 읽는다 함은 성서를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로 읽는 것을 뜻한다. 성서를 나와 연관시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의 세계와 나의 세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사관, 가치관을 전제해야 한다. 역사적 상황을 모르고 신문을 읽을 때, 독자는 기자의 판단을 사실인양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서의 배경을 모르면 그만큼 성서 이해에 제약을 받는다. 성서는 단지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할지라도 내 가치관에 따라 그것을 읽는 눈은 다르다. 당연히 이해도 다르다. 성서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바뀔 때, 성서는 비로소 나와 연관을 맺게 된다.

막 12:1-12의 포도원 비유는 이사야 5장에 기초한다. 대부분 성서의 이야기가 그렇듯 옛 전통과 이야기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읽힌다. 독자의 상황이 변하기 때문이다.

포도원 비유 다시 읽기(12:1-12)

이사야 5:1-7는 정성을 들여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는 사람의 애타는 심정을 다룬 노래다. 이 노래에서 저자는 “포도원”과 “기뻐하는 나무”를 시적 병행구로 쓰고 있다(사 5:7). 우리는 보통 포도원과 기뻐하시는 나무가 각각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사람”을 가리킨다고 읽지만, 사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배계층을 꼬집어 말하고 있다. “족속”(בֵּית, house)이나 “사람”(אִישׁ, man)은 모두 단수형으로 쓰였는데, 여기서 족속은 이스라엘 왕조를 뜻하고 사람은 유다의 왕을 지칭한 말이다. 야훼는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지도자들의 포악과 백성들의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비유는 당시 지배체제를 꾸짖고 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각각 왕조를 이루고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국가 경제는 산업화 과정에 들어선다. 초기 농경사회는 자급자족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농민들은 필요에 따라 각종 곡물을 재배하고 생필품을 물물교환 형식으로 충당했다. 농경사회가 점차 발달하고 국가간 수출입 경제가 가속화함에 따라 국가는 더 많은 생산을 위해 대규모 농작과 함께 품종을 곡식, 포도, 올리브 등으로 획일화하여 잉여산물을 수출하고 무역을 통해 자신들이 필요한 물품(군수품, 고급 자재, 사치품)을 사들이게 된다. 이런 과정에 소규모 자작농들은 땅을 잃고 지배계급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한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 나가, 땅 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사 5:8, 표준새번역)

땅과 땅을 연하고, 집과 집을 늘리는 행위는 더 많은 토지를 취득하고 더 많은 생산 공장을 짓는 것으로 대기업의 탄생을 알린다. 야훼 하느님이 이런 지도자들을 남겨 두겠느냐? 포도원 비유는 그들의 멸망을 선포한다(5:5-6).

마가복음 12:1-12는 당시의 현실을 비유로 이야기한다.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간 사람들은 소위 부재자 지주(absentee landlord)를 가리킨다. 그들은 토지를 세농아 부를 축적하고 타지에서 그들만의 향락을 즐긴다. 토지는 제한된 자원이다. 대지주가 많은 자원을 확보하려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취하는 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대규모 산업화 과정에서 소규모 자작농들은 적은 소출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다음 농사를 위해 자신들의 땅을 저당으로 대출을 받게 된다. 지배체제 속에서 살인적인 이자는 대출금 상환불능을 가져오고 결국 농민들은 저장물인 토지를 상실하게 된다. 서기관들은 지배체제의 종으로서 지배계급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소규모 자작농들은 자신의 땅을 잃고 이제는 남의 소유가 된 땅에서 소작인 노릇을 한다(막 12:1-12). 그나마 정규직을 가진 소작인은 나은 형편인데, 그들은 하루 아침에 비정규직인 떠돌이 일꾼(마 20:1-16)으로 전락하고 후에 힘없고 병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거지나 사로처럼 구걸에 의존하게 된다(눅 16:19-31). 이런 사회적 구조와 제도적 병폐가 마침내 농민들의 크고 작은 반란과 항쟁을 가져 온다. (3 장, “하느님 나라와 로마제국” 참조)

이 비유는 표면적으로 당시 사회 상황을 그리고 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배체제의 종들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소작인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인다. 그 결과 화가 난 주인이 와서 농부(소작인)들을 죽이고 다른 소작인을 구한다. 이것이 비유가 뜻했던 바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대변해 준 예수의 말을 듣고 기뻐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하는 줄 알고 그를 잡고자 한다(12:12).

이 비유가 고발하는 것, 숨겨진 대본(hidden transcript)이 무엇일까?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은 로마제국도 예루살렘 지배계급도 아니다. 토지의 진짜 주인은 하느님이고 그들은 단지 고용인일 뿐이다(레 25:23).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제멋대로 주인 행세한다. 그리고 하느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한다. 이 숨긴 뜻을 그들이 먼저 알아차렸다. 오늘날 정치적으로 읽으면, 국회의원이거나 정부 고위층들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고용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지만, 실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리고 되묻는다. 주인이 이 악한 소작인들을 어떻게 할까?(그들이 내린 답이 그들 머리 위에 있다.) 비유가 던지는 메시지는 악한 소작인을 멸하고, 신실한 고용인을 구하는 것처럼 현 지도자들과 함께 이를 지탱하는 지배체제의 멸망을 의미한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비유 속의 인물들을 남의 이야기로 읽으면, 성서는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고, 로마제국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 중 하나다. 그러나 성서가 내 이야기가 되려면, 나를 성서 속의 인물들과 동일시해야 한다.

비유를 표면적으로 읽으면, 독자는 분한 마음을 갖게 된다. 당연한 결과인데, 내 안에 잠재한 정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함과 정의는 내가 주인공의 입장에서 읽기 때문이다. 다만 역사적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독자는 자신을 피해자와 동일시하고 피해자로서 악을 행한 나쁜 청지기를 처벌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권선징악의 대표적 표본이지만 그럴 때 내게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비유를 심층적으로 읽으면, 우리는 다른 교훈을 얻는데 가해자의 눈으로 성서를 읽기 때문이다. 내가 악한 소작인이 되고 바리새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내가 실제로 악을 행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알고도 내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져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했을 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지배체제의 가치관에 억매인 결과다. 나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돌아볼 때,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벌 받는 것은 마땅하나, 동시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신을 살피게 된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정의와 함께 사랑의 법칙이 연달아 작용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성서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이런 죄인의 회개와 용서를 통해 사랑의 힘을 접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했는데(롬 5:20), 곧 성서를 내 환경에 적용하여 읽고, 내 이야기로 받아 들인 결과다.

본문에서 예수를 잡으려고 한 “저희”의 정체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11 장과 연결해서 읽으면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다(11:27). 그들은 예수에게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그처럼 행하는지 묻는데 예수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 직접 답하지 않고, 오히려 비유로 말하고 있다. 그들이 선지자를 죽이듯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고발이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해서 말한 것인 줄 알았다면, 스스로 가해자임을 인정한 셈이니 회개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잡고자 하니 결과는 뻔하다. 앞의 성전타파와 더불어 지배체제의 몰락을 선포한다.

예루살렘과 지도체제

이스라엘 왕정의 몰락과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체제는 제사장, 장로, 율법학자 등에게로 이전된다. 복음서에서 이들은 예수를 대적한 인물로 묘사된다(8:31; 11:27; 14:43, 53; 15:1). 이들의 역할을 성서 역사 속에서 간단히 살펴보자.

제사장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유대 사회, 종교적 지도층이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제사장들을 성전 공동체(Temple community)를 이끌었으며 아론의 후손은 주로 희생제물과 정결의식을 일임하고(막 1:44), 레위 자손들은 그 외 성전 일을 담당했다.

서기관 혹은 율법학자는 문서에 능한 전문인으로, 지도체제의 대리인으로서 율법 해석을 담당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그룹이나 계파를 형성하지 않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막 2:16)이란 표현이 암시하듯 다른 그룹에 섞여 활동했다.

장로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생활에서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들로 임명되었다(민 11:16-30). 미쉬나에 의하면 모세의 가르침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차례로 이어졌다고 말한다(아봇 1:1).

그 외 바리새인은 기원전 2세기-서기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던 유대 지도층으로 ‘바리새’라는 이름의 문자적 의미는 분리주의자라는 뜻이다. 세속주의와 분리하여 그들은 안식일, 정결법, 십일조, 식생활 등 히브리성서와 구전에 열거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다(막 7:1-13). 사두개인들(막 12:18-27) 역시 바리새인과 함께 당시 유대의 정치적 지도층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보다 세속적이었으며 구전(oral tradition)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행 23:18), 천사의 존재, 영의 불멸 사상을 부인했다. 헤롯당원은 헤롯 안티파스의 정책과 정부를 옹호, 지지하던 무리로 로마의 정치적 대변인으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다(막 3:6; 12:13-17).

세금 문제(12:13-17)

포도원 비유에 이어지는 세금에 관한 논쟁에서 예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 것은 하느님께 바치라고 말한다(12:17). 오늘날 일부 기독교인들은 본문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본문으로부터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말하거나 기껏해야 십일조를 강조하는 정도로 만족한다. 이야기의 배경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을 빌미를 얻고자 시험하는데, 예수는 이를 맞받아쳐 오히려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장면이다.

일단 인두세(人頭稅)는 말 그대로 머릿수에 따라 내는 세금이다. 본문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나 물을 때 켈소스(κῆνσος, census)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의 센서스 즉 인구조사를 뜻하는 말이다. 사람을 국가의 소유물로 볼 때, 인구조사는 일종의 재고조사에 해당한다. 당시 인두세는 데나리온으로 냈는데 이는 로마제국의 화폐 단위로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다(마 20:2). 예수는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고 하고, 이로부터 예수의 반격이 시작된다.



<http://www.wildwinds.com/coins/sear5/s1763.html>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함께 글이 새겨져 있다. Ti[berius] Caesar Divi Aug[usti] F[ilius] Augustus, “신(神)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저 아우구스투스”(Tiberius Caesar Augustus, son of the Divine Augustus)라는 글과 함께 뒷면에는 Pontif[ex] Maxim[us], “대제사장”(High Priest)이라고 쓰여 있다. 이 형상과 글은 로마 제국의 지배체제를 식민지역에 토착화하고 자연스럽게 복종을 요구하는 의식화 작업에 기여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성전에서 카이저의 형상을 지니고 다닌다는 것 자체로 황당한 일이다. 세금을 내고 말고가 아니라 하느님의 형상과 가치관을 숭배해야 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의 가치관을 성전에서 공공연히 지니고 다닌다고 상상해 보라.

카이저의 것을 카이저에게 주라. 카이저의 것이 무엇인가? 단지 화폐에 새겨진 형상뿐이고 그것은 로마제국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역할 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식민지 백성들에게 그것은 없으면 더 좋은 것이다. 그것을 그에게 되돌려 주라(ἀποδίδωμι). 그 형상 갖고, 꺼지라는 말이다. 세금을

바치고 말고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의도다. 바치라고 하면 백성들의 신임을 잃을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제국에 정면 도전하는 꼴이니, 예수를 정치적 이유로 제거할 명분을 얻는 결과다. 그들은 예수를 책잡을 빌미를 구했지만, 예수의 대답은 지배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말이다. 카이저 것을 카이저에게 주라는 말을 통해 예수는 오히려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신앙 없음을 고발한다. 동전에 카이저 형상과 글이 있다면, 그것을 주인인 카이저에게 되돌려 주어라.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창 1:27).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글(가치관)을 담아야 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하느님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로마제국의 믿음을 갖고, 성전에서 행세한다는 뜻이다. 세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과 가치관의 문제다.

신앙생활을 한다 함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함을 의미한다. 예수를 믿는다 함은 예수의 가치관을 내 것으로 하여 사는 것을 의미한다. 성전에서 로마의 이데올로기를 내어쫓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내몰아야 한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교회생활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세계관이고 가치관 설정이다. 종교를 그리고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결과다.

생각해 보기

1. 포도원 비유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그 결과 내가 얻는 교훈은?
2. 내 삶 속에서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